

**중국 패션시장의 성공적 진입을 위한
한·중 스트리트 패션스타일 비교·분석⁺**
- 서울시와 대련시의 비교를 중심으로 -

배수정* · 오현아

전남대학교 의류학과 부교수*
전남대학교 의류학과 박사과정, 전남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A Comparative Analysis of Street Fashion Styles
in Korea and China, For Successful Launching
into Chinese Fashion Market**

- Focusing on the Seoul and Dalian -

Bae, Soo-Jeong* · Oh, Hyun-A

Prof. Dept. of Clothing & Textiles, Chonnam National Univ.*
Doctoral Course, Dept. of Clothing & Textiles, Chonnam National Univ.
Human Ecology Research Institute

Abstract

The main investigation of this thesis is about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fashion style preferences in the ages of 20-30 women, according to the style, by researching the area of Dalian and Seoul, represented as outstanding fashion cities in north eastern area. Both taking pictures and recording camcoders were performed at the famous fashion street in Seoul and Dalian. The period of investigation was from 24th of July to 2nd of August 2008. The result of research are as follows. Generally, the casual style was predominant in both area. The jean casual in Seoul was somewhat tidy and conservative, while that in Dalian showed the tendency of boldly exposed their body. In terms of easy casual, T-shirts and mini-tight skirt were preferred in Seoul, while T-shirts and midi-flare skirt was popular in Dalian. In Seoul, the blouse and mini skirt were in vogue, while one-piece dress, blouse and 5/7/9 length pants were prevalent in Dalian, in case of romantic style. The sports casual was relatively low in frequency in both areas, however, it was relatively

+ 이 논문은 2007년도 전남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Bae, Soo-Jeong, Tel. +82-62-530-1344
E-mail: sjbae@chonnam.ac.kr

more popular in Dalian than in Seoul. The frequency of classic style was similar in both areas. The T-shirts/blouse and Chanel-line skirt were preferred in Seoul, while the combination of jacket/shirts and full-length straight pants were preferred in Dalian. The one-piece dress was predominant in feminine style, the combination of mini one-piece dress and shoulder bag prevalent in Seoul, while the combination of Chanel-line one-piece dress designed as boldly exposed body was popular in Dalian, which shows the tendency of sexy, feminine style. The clear contrast or differences of street styles in Seoul and Dalian would become evident by this research. The continuous investigations into the various regions of China would be expected as an important measure for the successful launching into the Chinese fashion market.

Key Words : Chinese Fashion Market(중국패션시장), Fashion Style(패션스타일), Street Fashion(스트리트패션)

1. 서론

2008년 맥킨지 연구소(McKinsey Global Institute, MGI)자료에 의하면, 중국은 2025년 미국과 일본에 이어 3대 소비시장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국제투자은행인 CSG(Credit Suisse Global)는 2015년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소비시장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¹⁾. 이러한 외형적 성장과 함께 중국 정부는 내수시장의 확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2010년 초반에는 소비가 본격적인 상승계도에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²⁾. 이와 더불어 중국은 의류생산대국이자 의류소비대국으로 세계 최대 의류소비시장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인의 의류 소비액은 가구당 전체 소비액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고, 이 비율은 1997년 대비 26.47% 증가한 것이다³⁾.

이러한 중국시장에서의 성공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중국을 하나의 단일시장으로의 공략을 지양해야 하는데, 중국의 경우 의류소비와 관련해 남방과 북방의 뚜렷한 기후차이가 있어 선호되는 아이템, 디자인, 색채, 착장법 등이 서로 상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지역별 맞춤형 디자인 개발 및 마케팅 전략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⁴⁾. 또한 같은 캐주얼 스타일이라도 중국과 한국 간 착용되는 스타일의 차이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를 규명하고자 패션 스타일별 아이템, 문양, 색, 액세서리 분석을 실시하는 본 연구에 착안하게 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지역인 대련은 중국 동북지방의 '홍콩'이라 불릴 만큼 육해공의 다양한 교통망을 통해 발해만 지역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력을 보이는 대표적인 중국의 도시이다⁵⁾. 그리고 한국과 역사적, 문화적으로 유기적 관계를 형성해 옴과 동시에 한국 의류산업의 중국 진출에 있어 교두보 역할을 해온 동북 3성의 주요 도시이고, 시의 중점산업으로 의류산업이 선정된 점⁶⁾ 등이 대련을 서울시와 비교대상 도시로 선정하게 된 배경이다. 특히 매년 9월에 열리는 대련국제복장절(大連國際服裝節)은 세계 20여 개국에서 500~700여 브랜드가 참가하는 중국 최대 규모의 패션박람회로 세계박람회협회(UFI)인증을 받을 만큼 국제적으로 알려져 있어⁷⁾ 대련이 패션의 도시로 유명한 또 하나의 이유가 되고 있다.

중국과 한국의 소비자 변화와 선호하는 패션 스타일 또한 각 도시 및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수용되기 때문에 각 도시의 개성적인 스타일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으로 거리에서 발견되는 일반 대중들의 차림새인 스트리트 패션을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이 분야의 선행연구로는 마케팅적인 측면과 의복구성학적인 측면에서 주로 다루어져왔으며, 디자인 측면에서 김찬주 외⁸⁾의 연구와 임순 외⁹⁾의 연구에서는 중국과 한국의 스트리트 패션을 서울, 북경, 상해를 중심으로 연구하였고 최경희¹⁰⁾의 연구에서는 중국 스트리트 패션에 나타나는 캐주얼 이미지를 알아보았다. 또한 동북지역에 관련하여 배수정¹¹⁾, 배수정 외¹²⁾, 천지영 외¹³⁾, 오현아

외¹⁴⁾, 백정현 외¹⁵⁾에 의해 점차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위 연구들은 주로 상해와 북경에 집중되어 있고, 특히 동북지역을 다루었다 할지라도 한국 서울의 패션스타일과의 비교는 다루지 않고 있어서 중국의 동북지역과 서울의 유행스타일의 차이를 알아내기는 어려운 점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 동북지역 패션의 중심 도시인 대련과 한국의 패션의 중심지인 서울의 스트리트 스타일 중, 패션에 민감한 20-30대 여성의 패션 선호도를 스타일별로 세분하여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중국시장에 진출한 국내 기업에게 보다 정확한 지역적 선호 경향을 제공하고, 한국 패션브랜드의 중국 내수시장의 성공적 진입을 위한 디자인의 기초자료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II. 연구방법 및 내용

연구의 지역은 서울과 대련지역 패션 변화가 중심으로 선택하였는데, 서울은 명동, 압구정동, 신사동, 강남역 부근, 대련은 승리광장 지하상가, 중산로(中山路) 마이칼(Mykal)백화점 부근과 개발구의 안성백화점 부근을 중심으로 촬영하였다. 촬영사진은 전신착장 모습만을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고, 조사 시기는 2008년 7월 24일부터 8월 2일까지 약 2주에 걸쳐 진행하여 2008년 여름 대련과 서울의 여성 스트리트 패션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조사시간대는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시간대인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실시하였으며 캠코더 및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하여 촬영하였다. 이 결과 판독이 용이한 20~30대 여성의 사진자료 각각 470점씩 총 940점을 선정하여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조사항목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본 연구에서의 스타일 분류 기준은, 진캐주얼(jean casual)은 청바지나 청치마 등 진(jean)소재 의류를 한 점 이상 착용한 스타일로, 이지 캐주얼(easy casual)은 캐주얼 스타일의 가장 기본적인면서도 대표적인 스타일로 특별한 소재나 디테일의 구분 없이 편히 착용할 수 있는 자연스럽게 편안한 스타일로 구분하였다. 또한 로맨틱 스타일(romantic style)은

프릴이나 레이스, 리본 등의 디테일과 파스텔 톤의 컬러, 쉬폰 소재 등으로 여성적인 이미지가 가미된 스타일로 분류하였고, 스포츠 캐주얼(sports casual)은 정통 스포츠 웨어보다 패션성이 가미되어 있으면서 스포츠 웨어의 활동적이며 기능적인 특성을 지닌 스타일로 분류하였다¹⁶⁾.

본 연구의 분석방법은 WINDOW용 SPSS 12.0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프로그램으로 처리하여, 패션 스타일별 아이템, 문양, 색, 액세서리의 평균, 퍼센트, 빈도 분석을 행하였다.

III. 한·중 소비패턴의 변화

1. 한·중 소비시장의 변화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변화일로에 서 있는 중국은 소비시장 규모에 있어 2006년 7조 6,410억 위안으로 2000년에 비해 2배 이상 확대되었고, 지출패턴도 통신, 문화, 여가 부분이 늘어나는 등 식료품 위주의 후진형에서 탈피하고 있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¹⁷⁾. 또한 2008년 북경올림픽의 개최는 중국 소비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는데, 2008년 산업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중국이 수년 전부터 추진해오던 '경제 서비스화'와 '경제성장에서의 내수 역할 증대' 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대외 개방도 제고 및 자긍심 고취', '사회 의식 수준 제고' 등에도 영향을 미쳐 경제 사회전반에 파급효과를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¹⁸⁾. 그 영향은 곧 소비시장에 변화를 일으켜, 현재지향적 소비, 'Good-Enough' 제품소비, 유람소비, 그린소비, 네오 패밀리즘, 사이버 차이나이즈, '중국붐', '중국風' 등의 신조류를 형성하고 있다.

먼저 현재 지향적 소비란 장기간의 고도성장으로 중국 도시소비자들은 "향후 소득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확신하며 현재의 소비를 즐긴다는 것이며, 'Good-Enough' 제품소비란 중국인의 평균소득이 아직 낮기 때문에 고급품과 저가품의 중간 수준의 제품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 유람소비란 소득증대와 주 5일 근무제 정착 등에 힘입어 '돌아다

<표 1>스트리트 패션 조사항목

조사항목		조사 내용																
스타일		진캐주얼			이지캐주얼			스포츠캐주얼			로맨틱		클래식		페미닌			
아이템	상의	슬리브리스			티셔츠			셔츠			블라우스		니트		정퍼		재킷	
	하의	스커트	길이별			미니 스커트			샤넬 라인 스커트			미디 스커트		맥시 스커트				
		형태별	타이트 스커트			A라인 스커트			플레이어 스커트			폴리츠 스커트		티어드 스커트		벌룬 스커트		
	팬츠	길이별	핫팬츠			5부 팬츠			7/9부 팬츠			플렌스 팬츠						
		형태별	스트레이트 팬츠			벨보텀 팬츠			스키니 팬츠			카고 팬츠		트레이닝 팬츠		롤업팬츠		
원피스	H-실루엣						A-실루엣						X-실루엣					
문양	기하학	스트라이프				도트				체크				로고&심벌				
	전통	페이즐리						당초						복합				
	자연	동물						식물										
		인무늬						기타										
색	상의	Red	Orange	Yellow	Brown	Green	Khaki	Blue	Violet	Purple	Multi	White	Gray	Black				
	하의	Red	Orange	Yellow	Brown	Green	Khaki	Blue	Violet	Purple	Multi	White	Gray	Black				
	원피스	Red	Orange	Yellow	Brown	Green	Khaki	Blue	Violet	Purple	Multi	White	Gray	Black				
액세서리	가방	토드백						숄더백				크로스백						
	신발	펌프스			샌들			슬리퍼			통샌들		스니커즈					

니면서 구경하고 체험하며 견문을 넓히는 소비를 말하며, 그린소비는 웰빙, 친환경제품에 대한 소비를, 네오 패밀리즘은 1978년부터 실시한 1자녀정책 등으로 가족구조가 바뀌어 한자녀 가정이나, 무자녀 가정의 소비가 늘어나고 있음을 말한다. 사이버 차이니즈는 인터넷의 보급으로 온라인 소비시장이 확대되고 있음을, ‘중국붐’, ‘중국풍’은 중국의 고도성장기에 따라 높은 자부심과 긍지를 바탕으로 자국 역사와 문화에 대해 재조명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음을 의미 한다¹⁹⁾.

반면에 한국 소비시장은 향후 소비여건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유가 및 환율의 변화가 내수에 큰 영향을 주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시장의 붕괴로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2008년 말 이후 수출여건은 크게 악

화될 것으로 예상 된다²⁰⁾. 한국무역협회의 ‘최근 중국 무역구조 변화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의 2008년 상반기 중국의 10대 수입국의 증가율을 보면 우리나라가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전체 수입 증가율은 30.6%인 반면, 상반기 중국의 對 한국 수입증가율은 19.9%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의 내수시장 강화라는 정책과 맞물려 가공무역 금지조치와 수출억제조치로 중국의 對 세계 수출이 둔화될 경우, 2007년 기준 중국의 대 한국 교역에서 가공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50.4%로 대 세계 가공무역 비중(45.4%)을 상회하는 한국의 경우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²¹⁾.

그러나 현재 의류산업 중 여성복 산업에서 중국과의 경쟁력부분을 살펴보면 기술경쟁력 수준에서 중국은 한국에 비하여 기계설비기술력은 월등히 높은

경쟁우위를 차지하고 있고, 생산시스템운영기술력과 기술인력, 품질관리기술력 등은 한국과 거의 동등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생산시스템부문은 향후 3~5년 사이에 한국을 추월하여 격차를 넓힐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이 중국과의 경쟁격차가 높은 부문은 디자인 부분인데, 이 역시 향후 수년 사이에 그 격차가 좁혀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²²⁾. 따라서 급변하는 중국시장이 국내기업의 시장 확대 및 수익창출의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소비시장의 변화를 끊임없이 살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 한·중 소비자의 변화

중국은 소비자들의 소비패턴이 크게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첫째, 삶의 질을 추구하는 경향으로, 고급화, 건강지향, 유행중시, 개인의 개성과 기호를 만족시킬 수 있는 감성중시의 소비패턴으로 변화하고 있다. 둘째, 배급제도와 자급자족 경제체제가 퇴색되고 제한적인 시장경제가 도입되면서 소비계층과 시장이 다양화되고 있다. 특히 소득의 증가와 여성의 지위향상, 사회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여성과 어린이, 노인계층 등이 새로운 소비주체로 부각되고 있다²³⁾. 또한 최근 발표된 '신조어로 알아보는 중국 소비시장 트렌드 변화'라는 보고서에서 살펴보면, '타징지(她經濟)'란 여성을 일컫는 '她'와 경제가 합쳐 만들어진 신조어로 여성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가 향상됨에 따라 여성의 구매파워가 커져 특유의 경제계층과 경제현상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²⁴⁾. 이와 유사한 신조어로 '월광족(月光族)'이 있다. 이들은 월급을 모두 써버리는 신세대를 의미하는 말로, 중국의 소비 변화를 대변한다²⁵⁾. 특히 중국 인구의 48%가 여성 인구이며 20~50세 인구 중 여성인구가 2.5억 명임을 감안하면, 이는 중국 패션 시장에서 여성복 시장이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요 시장임을 알려주는 수치이다.

한국의 경우, 제일기획에서 지난 10년간의 한국 소비자의 변화를 관심사·가치관·생활상·미디어·소비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는데, 첫째 관심사에 있어서는 문화·패션·취미·여가 등과 같은 삶의 다양성을 높여주는 영역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전반적으로 '먹고 살기' 위한 관심사에서 '즐거고 누리

는 삶'을 위한 관심으로 변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가치관에 있어서는 즐겁게 사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목표라는 의식이 증가한 반면, 낭비를 통한 즐거움 추구, 현재의 행복만을 추구하려는 성향은 감소하였다. 셋째, 자신의 외모를 적극적으로 가꾸려는 성향이 증가하였으며, 자신의 개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유행에 앞서가는 패션을 추구하는 성향도 증가하였다. 반면 유명 브랜드에 의존하거나 주위의 시선을 의식하는 정도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미디어와 소비에 있어서는 인터넷이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는 인식이 강해졌으며, 인터넷을 통한 정보 검색이 일상적인 행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이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매체로서의 영향력은 줄어들고 있다. 소비자는 쇼핑을 통해 즐거움을 얻는 성향이 강해졌으며, 신상품 및 첨단 기능에 대한 관심 및 구매욕구도 증가하였다²⁶⁾. 이러한 트렌드의 변화와 함께 2002년을 기점으로 체감 경기가 하락하면서 소비심리 위축 성향이 심화됨에 따라 총동적인 구매를 자제하는 한편, 싼 가격으로 제품을 사려는 저가지향 의식과 가격이 저렴하다면 매장이 멀어도 가서 구입하려는 경향이 높아져 저가시장의 확대²⁷⁾와 함께 소비자 개인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디자인 경쟁력이 높은 상품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의 패션 도시로 급부상하고 있는 동북지역의 대련(Dalian, 大連)과 한국의 패션 중심지인 서울 지역의 스트리트 스타일 중 보다 패션에 민감한 20~30대 여성의 패션 선호도를 스타일 별로 나누어 아이템, 문양, 색, 액세서리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양국간 패션 스타일의 차이를 밝히고 앞으로 빠르게 변화할 패션시장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초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IV.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서 분석된 의복 스타일은 캐주얼의 비중이 서울과 대련 모두 높게 나타났다(표 2참조). 서울의 경우 선정된 사진자료 470점 중 인캐주얼 스타일이 36.2%, 이지캐주얼 스타일이 37.2%, 페미닌과 클래식 스타일이 각 10.9%, 8.5%, 로맨틱과 스

포츠캐주얼이 7.0%와 0.2% 순이었다. 대련의 경우 선정된 사진자료 470점 중 진캐주얼 스타일 31.7%, 이지캐주얼 28.3%, 로맨틱과 페미닌 스타일이 14.7%, 13.8%, 클래식과 스포츠캐주얼이 각 8.1%, 3.4%의 비율을 보였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패션 스타일별로 서울과 대련의 스트리트 패션을 비교·분석하였다.

1. 진캐주얼 스타일 비교·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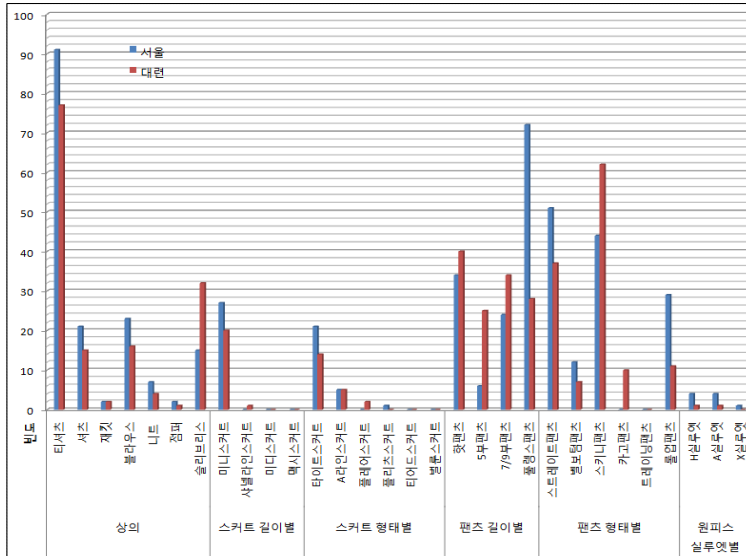
진캐주얼은 <표 2>에서와 같이 서울과 대련 모두에서 상당히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먼저 의복의 아이템에서, 상의는 티셔츠가 두 지역(서울:56.5%, 대련:52.4%) 모두 가장 선호되고 있었으며, 그 다음은 블라우스(서울:14.3%, 대련:10.9%)가 선호되고 있었다. 특이점은 대련의 경우 슬리브리스가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되는 결과²⁸⁾²⁹⁾³⁰⁾로, 보다 과감한 의복 스타일을 선호하는 중국 여성의 전반적인 의복 스타일로 해석된다. 하의는 팬츠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스커트는 상대적으로 빈도가 낮았으나 이중 미니 타이트스커트의 비율(서울:100%, 대련:95.2%)이 높았다. 이러한 현상은 서울과 대련에서 유사하게 나타났다. 팬츠의 길이에 있어서는 서울이 플렉스팬츠가 52.9%

로 높은 비율을 보인 반면, 대련의 경우는 핫팬츠 31.5%, 5부팬츠 19.7%, 7/9부 팬츠 26.8%, 플렉스팬츠 22.0%로 각각 고른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팬츠형태에 있어서는 스키니팬츠가 서울과 대련에서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스트레이트팬츠가 유사한 비율로 선호되고 있었다. 롤업팬츠(서울:21.3%, 대련:8.7%)는 서울지역에서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었다. 원피스는 서울에서 8.7%, 대련에서 1.9%의 낮은 빈도로 나타났고, 주요 실루엣은 H-실루엣과 A-실루엣이었다. 이는 캐주얼이라는 스타일의 특성상 착용이 편안한 실루엣이 선호된 것으로 해석된다<그림 1참조>.

문양에 있어서는 진이라는 소재의 특성상 두 도시 모두 민무늬(서울:47.9%, 대련:49.0%)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기하학적 문양이 38% 이상의 빈도로 나타나고 있었다<표 3참조>. 의복 색은 서울이 상의에 White 30.4%, 하의에 Blue 64.4%의 비율로 나타났고, 대련도 상의에 White 37.4%, 하의에 Blue 73.6%의 비율로 나타났다. 원피스는 서울에서 Blue, Multi, White가 각 33.3%로 나타났고, 대련에서는 단 2건 만이 관찰되었는데 이는 모두 진 소재 원피스였기 때문에 Blue 100%로 나타났다<표 4참조>. 진캐주얼에 주로 코디되는 가방은 슬더백이 전반적으로 높았으나 서울이 62.2%, 대련이 44.4%로

<표 2>의복 스타일 분석표(%)

의복 스타일	빈도(퍼센트)		상의		하의				원피스	
	서울	대련	서울	대련	스커트		팬츠		서울	대련
					서울	대련	서울	대련		
진캐주얼 스타일	170 (36.2)	149 (31.7)	161 (43.3)	147 (39.9)	27 (25.5)	21 (24.1)	136 (47.6)	127 (44.6)	9 (8.7)	2 (1.9)
이지캐주얼 스타일	175 (37.2)	133 (28.3)	155 (41.7)	125 (34.0)	45 (42.5)	24 (27.6)	122 (42.7)	101 (35.4)	20 (19.4)	8 (7.4)
로맨틱 스타일	33 (7.0)	69 (14.7)	15 (4.0)	30 (8.2)	6 (5.7)	10 (11.5)	10 (3.5)	23 (8.1)	20 (19.4)	43 (39.8)
스포츠캐주얼 스타일	1 (0.2)	16 (3.4)	1 (0.3)	15 (4.1)	0 (0.0)	3 (3.4)	1 (0.3)	12 (4.2)	0 (0.0)	1 (0.9)
클래식 스타일	40 (8.5)	38 (8.1)	29 (7.8)	30 (8.2)	20 (18.9)	19 (21.8)	9 (3.1)	11 (3.9)	11 (10.7)	8 (7.4)
페미닌 스타일	51 (10.9)	65 (13.8)	11 (3.0)	21 (5.7)	8 (7.5)	10 (11.5)	8 (2.8)	11 (3.9)	43 (41.7)	46 (42.6)
합 계	470 (100)	470 (100)	372 (100)	368 (100)	106 (100)	87 (100)	286 (100)	285 (100)	103 (100)	108 (100)



<그림 1> 진캐주얼 스타일 아이템별 빈도



<그림 2> 진캐주얼, 서울



<그림 3> 진캐주얼, 대련

<표 3> 진캐주얼 스타일 문양별 비교(%)

항목	서울	대련	세부항목	서울	대련
기하학	50(39.7)	58(38.9)	스트라이프	12(8.2)	12(8.1)
			도트	4(2.7)	4(2.7)
			체크	1(0.7)	1(0.7)
			로고&심벌	41(28.1)	41(27.5)
전통	0(0.0)	0(0.0)	페이즐리	0(0.0)	0(0.0)
			당초	0(0.0)	0(0.0)
			복합	0(0.0)	0(0.0)
자연	4(2.7)	4(2.7)	동물	1(0.7)	1(0.7)
			식물	3(2.1)	3(2.0)
민무늬	70(47.9)	73(49.0)	민무늬	70(47.9)	73(49.0)
기타	14(9.6)	14(9.4)	기타	14(9.6)	14(9.4)
합계	146(100)	149(100)	합계	160(100)	153(100)

약간의 빈도 차이가 있었고, 신발은 서울이 펌프스, 샌들, 스니커즈가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으나, 대련에서는 스니커즈가 36.9%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 차이를 보였다<표 5, 6참조>.

결과적으로 가장 전형적인 진캐주얼 스타일은 두 도시 모두에서 티셔츠와 미니 타이트스커트, 솔더백, 샌들 혹은 스니커즈의 조합임을 알 수 있었고, 차이 라면 서울의 진스타일은 <그림 2>와 같은 좀 더 단정하고 보수적인 성향을 보인 반면, 대련의 진스타

일은 <그림 3>과 같은 과감한 노출 성향을 보였다. 의복 색, 문양, 액세서리에 있어서는 약간의 빈도 차이는 있지만 가장 선호되는 스타일에 있어서는 솔더백과 샌들, 스니커즈 등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4> 진캐주얼 스타일 색상별 비교(%)

분류	상의		하의		원피스	
	서울	대련	서울	대련	서울	대련
Red	7(4.3)	12(8.2)	0(0.0)	0(0.0)	0(0.0)	0(0.0)
Orange	6(3.7)	3(2.0)	0(0.0)	0(0.0)	0(0.0)	0(0.0)
Yellow	4(2.5)	8(5.4)	0(0.0)	0(0.0)	0(0.0)	0(0.0)
Brown	4(2.5)	3(2.0)	0(0.0)	0(0.0)	0(0.0)	0(0.0)
Green	2(1.2)	3(2.0)	0(0.0)	0(0.0)	0(0.0)	0(0.0)
Khaki	1(0.6)	2(1.4)	0(0.0)	0(0.0)	0(0.0)	0(0.0)
Blue	9(5.6)	6(4.1)	105(64.4)	109(73.6)	3(33.3)	2(100)
Violet	1(0.6)	1(0.7)	0(0.0)	0(0.0)	0(0.0)	0(0.0)
Purple	2(1.2)	3(2.0)	0(0.0)	0(0.0)	0(0.0)	0(0.0)
Multi	57(35.4)	27(18.4)	0(0.0)	4(2.7)	3(33.3)	0(0.0)
White	49(30.4)	55(37.4)	7(4.3)	5(3.4)	3(33.3)	0(0.0)
Gray	9(5.6)	6(4.1)	15(9.2)	17(11.5)	0(0.0)	0(0.0)
Black	10(6.2)	18(12.2)	36(22.1)	13(8.8)	0(0.0)	0(0.0)
합계	161(100)	147(100)	163(100)	148(100)	9(100)	2(100)

<표 5>스타일에 따른 액세서리-가방 비교(%)

지역별 스타일		토트백	숄더백	크로스백	합계
진	서울	31(23.0)	84(62.2)	20(14.8)	135(100)
	대련	27(30.0)	40(44.4)	23(25.6)	90(100)
이지 캐주얼	서울	41(33.3)	70(56.9)	12(9.8)	123(100)
	대련	27(38.6)	16(22.9)	27(38.6)	70(100)
로맨틱	서울	4(14.3)	22(78.6)	2(7.1)	28(100)
	대련	18(42.9)	16(38.1)	8(19.0)	42(100)
스포츠 캐주얼	서울	0(0.0)	0(0.0)	0(0.0)	0(0.0)
	대련	3(50.0)	3(50.0)	0(0.0)	6(100)
클래식	서울	13(43.3)	17(56.7)	0(0.0)	30(100)
	대련	10(40.0)	14(56.0)	1(4.0)	25(100)
페미닌	서울	9(21.4)	30(71.4)	3(7.1)	42(100)
	대련	14(41.2)	16(47.1)	4(11.8)	34(100)

<표 6>스타일에 따른 액세서리-신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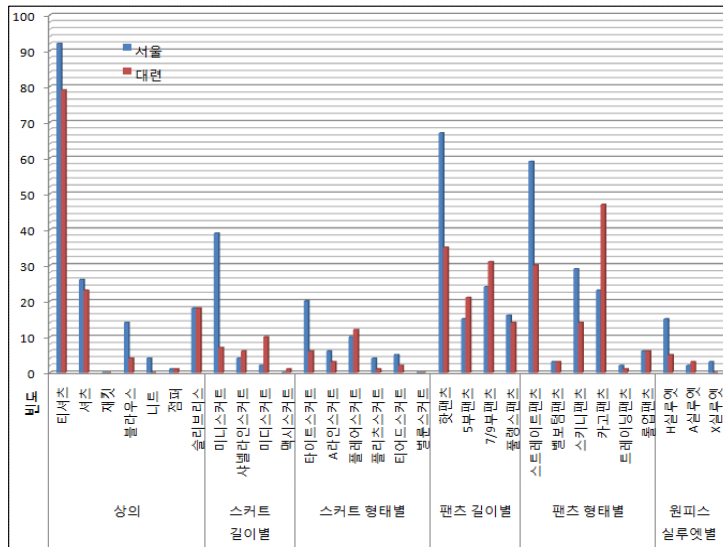
지역별 스타일		펌프스	샌들	슬리퍼	통샌들	스니커즈	합계
진	서울	43(25.3)	50(29.4)	15(8.8)	21(12.4)	41(24.1)	170(100)
	대련	24(16.1)	32(21.5)	16(10.7)	22(14.8)	55(36.9)	149(100)
이지 캐주얼	서울	39(22.3)	44(25.1)	27(15.4)	33(18.9)	32(18.3)	175(100)
	대련	14(10.5)	24(18.0)	19(14.3)	13(9.8)	63(47.4)	133(100)
로맨틱	서울	17(51.5)	10(30.3)	5(15.2)	1(3.0)	0(0.0)	33(100)
	대련	7(10.1)	30(43.5)	18(26.1)	6(8.7)	8(11.6)	69(100)
스포츠 캐주얼	서울	0(0.0)	0(0.0)	0(0.0)	1(100)	0(0.0)	1(100)
	대련	1(6.7)	1(6.7)	1(6.7)	1(6.7)	11(73.3)	15(100)
클래식	서울	19(47.5)	14(35.0)	6(15.0)	1(2.5)	0(0.0)	40(100)
	대련	19(50.0)	15(39.5)	2(5.3)	2(5.3)	0(0.0)	38(100)
페미닌	서울	13(25.5)	18(35.3)	16(31.4)	3(5.9)	1(2.0)	51(100)
	대련	11(17.2)	36(56.3)	15(23.4)	0(0.0)	2(3.1)	64(100)

2. 이지캐주얼 스타일 비교 · 분석

이지캐주얼 스타일의 경우 서울이 대련보다 8.9%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지 캐주얼 스타일의 아이템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지캐주얼 스타일의 상의는 두 도시 모두 티셔츠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서울 59.4%, 대련 63.2%의 높은 비율을 보였다. 다음은 셔츠인데 서울이 16.8%, 대련이 18.4%로 유사한 비율로 나타났으나, 블라우스의 경우는 서울이 9.0%, 대련이 3.2%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하의에 있어서는 진캐주얼과 마찬가지로 바지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스커트 길이는 서울의 경우 미니스커트가 86.7%의 높은 비율을 보였고, 대련은 미디스커트가 41.7%로 가장 선호되었다. 팬츠의 길이에 있어서는 두 지역 모두 핫팬츠(서울:54.9%, 대련:34.7%)가 높은 빈도로 나타났으나, 형태에 있어서는 서울은 스트레이트팬츠(48.4%), 스키니팬츠(23.8%) 순이었고 대련에서는 카고팬츠(46.5%), 스트레이트팬츠(29.7%) 순으로 나타났다. 원피스는 이지캐주얼에서 서울 19.4%, 대련 7.4%로 낮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실루엣에서는 두 도시 모두 H 실루엣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그림 4참조>.

문양에 있어서는 두 도시 모두 민무늬(서울:65.1%, 대련 39.8%)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기하학적 문양, 기타로 나타났다. 이는 이지캐주얼의 특성상 장식이 강하지 않은 단순한 의복이 선호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표 7참조>. 의복 색은 서울이 상의에 White 38.1%, 하의에 Black 28.1%의 비율로 나타났고, 대련도 상의에 White 29.6%, 하의에 Black 20.3%의 비율로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표 8참조>. 이지캐주얼에 주로 코디되는 가방은 서울은 숄더백이 56.9%로 높게 나타났으나 대련에서는 토트백 38.6%, 크로스백 38.6%로 선호도에 차이가 나타났고, 신발은 서울에서는 샌들 25.1%, 펌프스 22.3% 순이었으나 대련에서는 스니커즈 47.4%, 샌들 18.0% 순이었다.

결과적으로 가장 전형적인 이지캐주얼 스타일은 서울지역에서는 <그림 5>와 같은 티셔츠와 미니 타이트스커트, 샌들과 숄더백의 조합인 반면, 대련지역은 <그림 6>과 같은 티셔츠와 미디 플레어스커트, 스니커즈, 토트백 혹은 크로스백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대련의 미디 플레어스커트와 스니커즈의 조합은 2007년도 여름에 유행했던 스타일로 대련이 서울의 유행을 바짝 뒤쫓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 이지캐주얼 스타일 아이템별 빈도



<그림 5> 이지캐주얼, 서울



<그림 6> 이지캐주얼, 대련

<표 7> 이지캐주얼 스타일 문양별 비교

항목	서울	대련	세부항목	서울	대련
기하학	40(22.9)	44(33.1)	스트라이프	13(7.4)	11(8.3)
			도트	3(1.7)	1(0.8)
			체크	0(0.0)	2(1.5)
			로고&심벌	24(13.7)	30(22.6)
전통	1(0.6)	0(0.0)	페이즐리	0(0.0)	0(0.0)
			당초	0(0.0)	0(0.0)
			복합	1(0.6)	0(0.0)
자연	4(2.3)	1(0.8)	동물	2(1.1)	1(0.8)
			식물	2(1.1)	0(0.0)
민무늬	114(65.1)	53(39.8)	민무늬	114(65.1)	53(39.8)
기타	16(9.1)	35(26.3)	기타	16(9.1)	35(26.3)
합계	175(100)	133(100)	합계	175(100)	133(100)

<표 8> 이지캐주얼 스타일 색상별 비교

분류	상의		하의		원피스	
	서울	대련	서울	대련	서울	대련
Red	12(7.7)	22(17.6)	7(4.2)	2(1.7)	4(28.6)	0(0.0)
Orange	3(1.9)	3(2.4)	1(0.6)	3(2.5)	1(7.1)	0(0.0)
Yellow	6(3.9)	10(8.0)	3(1.8)	8(6.8)	0(0.0)	0(0.0)
Brown	3(1.9)	1(0.8)	22(13.2)	5(4.2)	1(7.1)	1(12.5)
Green	2(1.3)	2(1.6)	1(0.6)	2(1.7)	0(0.0)	0(0.0)
Khaki	0(0.0)	3(2.4)	20(12.0)	25(21.2)	0(0.0)	0(0.0)
Blue	17(11.0)	7(5.6)	16(9.6)	10(8.5)	1(7.1)	0(0.0)
Violet	2(1.3)	1(0.8)	2(1.2)	0(0.0)	1(7.1)	0(0.0)
Purple	4(2.6)	1(0.8)	2(1.2)	3(2.5)	0(0.0)	0(0.0)
Multi	17(11.0)	23(18.4)	2(1.2)	3(2.5)	2(14.3)	2(25.0)
White	59(38.1)	37(29.6)	30(18.0)	19(16.1)	1(7.1)	0(0.0)
Gray	17(11.0)	5(4.0)	14(8.4)	14(11.9)	0(0.0)	1(12.5)
Black	13(8.4)	10(8.0)	47(28.1)	24(20.3)	3(21.4)	4(50.0)
합계	155(100)	125(100)	167(100)	118(100)	14(100)	8(100)

3. 스포츠캐주얼 스타일 비교 · 분석

스포츠캐주얼 스타일은 서울 0.2%, 대련 3.4%로 두 도시 모두 낮은 빈도를 보였다. 특히 서울에서는 점퍼형태의 상의와 7/9부 길이의 트레이닝팬츠 차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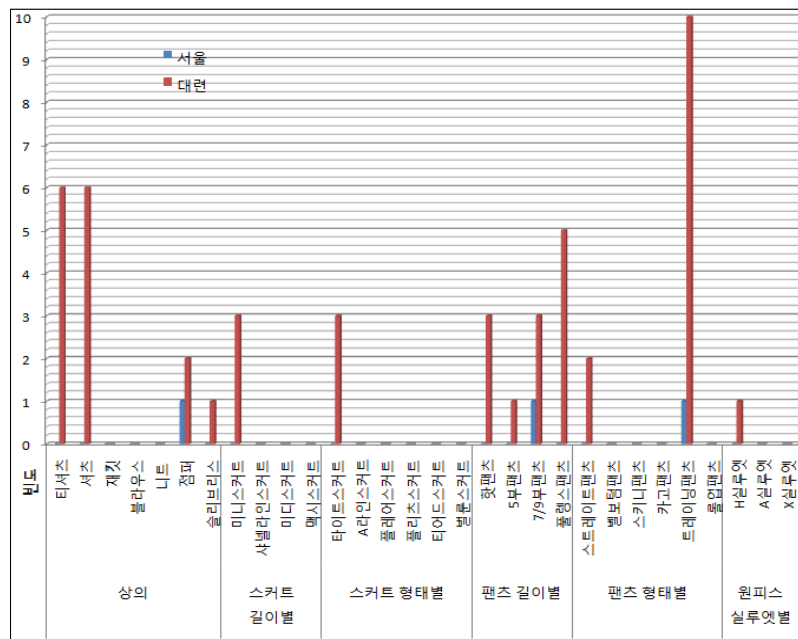
단 한 건만이 조사되었고, 대련에서는 상의에 티셔츠(40.0%), 셔츠(40.0%), 점퍼(13.3%)가 나타났고, 하의는 미니 타이트스커트와 핫팬츠, 7/9부팬츠 혹은 플랜스팬츠로 나타났다. 원피스는 두 지역 중 대련의 스포츠 캐주얼 스타일에서만 H실루엣 단 한

점이 관찰되었다<그림 7참조>.

문양에 있어서는 두 도시 모두 민무늬(서울:100%, 대련 43.8%)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기하학적 문양, 기타로 나타났다<표 9참조>. 의복 색은 서울이 상·하의에 Red 100%로 나타났고, 대련은 상의에 White와 Red 각 33.3%, Multi 20.0%, 하의에 Black 26.7%, Blue 20.0%의 비율로 나타났다<표 10참조>. 스포츠캐주얼에 주로 코디되는 가방은 서

울은 조사자가 가방을 들지 않은 상태였고, 대련에서는 토트백과 솔더백이 각 50.0%로 나타났다. 신발은 서울에서는 통센들이, 대련에서는 스니커즈가 73.3%로 가장 높았다.

결과적으로 가장 전형적인 스포츠캐주얼 스타일은, 서울은 전형적인 트레이닝복이었고, 대련은 티셔츠 및 셔츠에 핫팬츠 혹은 미니스커트, 7/9부팬츠에 스니커즈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7> 스포츠 캐주얼 스타일 아이템별 빈도

<표 9> 스포츠캐주얼 스타일 문양별 비교

항목	서울	대련	세부항목	서울	대련
기하학	0(0.0)	5(31.3)	스트라이프	0(0.0)	1(6.3)
			도트	0(0.0)	0(0.0)
			체크	0(0.0)	0(0.0)
			로고&심벌	0(0.0)	4(25.0)
전통	0(0.0)	0(0.0)	페이즐리	0(0.0)	0(0.0)
			당초	0(0.0)	0(0.0)
			복합	0(0.0)	0(0.0)
자연	0(0.0)	1(6.3)	동물	0(0.0)	1(6.3)
			식물	0(0.0)	0(0.0)
민무늬	1(100)	7(43.8)	민무늬	1(100)	7(43.8)
기타	0(0.0)	3(18.8)	기타	0(0.0)	3(18.8)
합계	1(100)	16(100)	합계	1(100)	16(100)

<표 10> 스포츠 캐주얼 스타일 색상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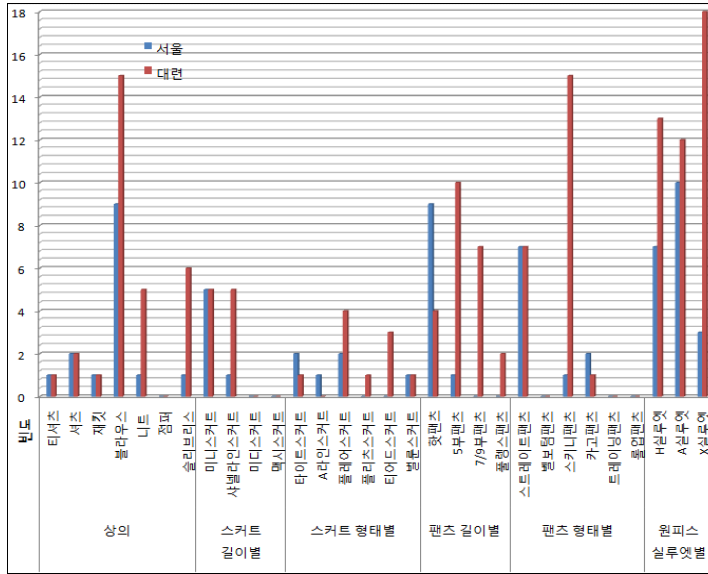
분류	상의		하의		원피스	
	서울	대전	서울	대전	서울	대전
Red	1(100)	5(33.3)	1(100)	2(13.3)	0(0.0)	(0.0)
Orange	0(0.0)	0(0.0)	0(0.0)	0(0.0)	0(0.0)	(0.0)
Yellow	0(0.0)	1(6.7)	0(0.0)	1(6.7)	0(0.0)	(0.0)
Brown	0(0.0)	0(0.0)	0(0.0)	0(0.0)	0(0.0)	(0.0)
Green	0(0.0)	0(0.0)	0(0.0)	1(6.7)	0(0.0)	(0.0)
Khaki	0(0.0)	0(0.0)	0(0.0)	0(0.0)	0(0.0)	(0.0)
Blue	0(0.0)	1(6.7)	0(0.0)	3(20.0)	0(0.0)	(0.0)
Violet	0(0.0)	0(0.0)	0(0.0)	0(0.0)	0(0.0)	(0.0)
Purple	0(0.0)	0(0.0)	0(0.0)	0(0.0)	0(0.0)	(0.0)
Multi	0(0.0)	3(20.0)	0(0.0)	2(13.3)	0(0.0)	(100)
White	0(0.0)	5(33.3)	0(0.0)	2(13.3)	0(0.0)	(0.0)
Gray	0(0.0)	0(0.0)	0(0.0)	0(0.0)	0(0.0)	(0.0)
Black	0(0.0)	0(0.0)	0(0.0)	4(26.7)	0(0.0)	(0.0)
합계	1(100)	15(100)	1(100)	15(100)	0(0.0)	(100)

4. 로맨틱 스타일 비교 · 분석

로맨틱 스타일은 대전이 서울보다 7.7%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로맨틱 스타일의 아이템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로맨틱 스타일에서는 원피스의 빈도가 높았으며 이 현상은 서울보다 대전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상의는 서울과 대전이 블라우스(서울:60.0%, 대전:50.0%)에 대한 높은 선호도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서울이 셔츠 13.3%, 대전이 슬리브리스 20.0%의 비율로 나타났다. 하의는 스커트와 팬츠 모두 짧은 길이가 선호되고 있었다. 스커트의 길이와 형태는 미니길이(서울:83.3%, 대전:50.0%)의 플레어스커트(서울:33.3%, 대전:40.0%)가 두 도시 모두 가장 선호되었다. 팬츠의 길이에 있어서는 서울은 핫팬츠가 90.0%로 가장 선호도가 높았고, 대전은 5부(43.5%), 7/9부(30.4%) 팬츠가 주로 착용되었다. 형태에 있어서는 서울 지역은 스트레이트 팬츠(70.0%)가 높게 나타났고, 대전은 스키니/레깅스가 65.2%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대전에서 스키니/레깅스가 높게 나타난 현상은 원피스와 팬츠를 레이어드 룩으로 착용하는 스타일의 유행 때문인데, 특히 원피스나 길이가 긴 상의를 팬츠와 코디했을 때는 육안으로 스키니와 레깅스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으므로 이를 함께 통계처리 하였다. 원피스는 로맨틱 스타일에서 서울 19.4%, 대전 39.8%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 중에서 서울은 A-실루엣이 가장 선호되었고 대전은 X-실루엣이 가장 선호되어 실루엣에서 선호도의 차이가 나타났다<그림 8참조>.

문양에 있어서는 두 도시 모두 민무늬(서울:69.7%, 대전 62.3%)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기하학적 문양, 기타로 나타났으며 두 도시 간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표 11참조>. 의복 색은 서울이 상의에 White 60.0%, 하의에 Blue 31.1%의 비율로 나타났고, 대전은 상의에 White 23.3%, 하의에도 White 33.3%의 비율로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원피스는 화려한 꽃무늬나 대담한 기하학적 문양이 많은 관계로 서울은 Multi 35.0%로 가장 높았고, 대전은 White 37.2%, Multi 25.6%로 나타났다<표 12참조>. 로맨틱 스타일에 주로 코디되는 가방은 서울은 숄더백이 78.6%로 높게 나타났으나 대전에서는 토트백 42.9%, 숄더백 38.1%로 선호도에 차이가 나타났고, 신발은 서울에서는 펌프스(51.5%)가 가장 높고 샌들(30.3%)이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대전에서는 샌들이 43.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슬리퍼가 26.1%의 비율로 선호되고 있었다.



<그림 8> 로맨틱 스타일 아이템별 빈도



<그림 9> 로맨틱스타일, 서울



<그림 10> 로맨틱스타일, 대전

<표 11> 로맨틱 스타일 문양별 비교

항목	서울	대전	세부항목	서울	대전
기하학	6(18.2)	7(10.1)	스트라이프	2(6.1)	0(0.0)
			도트	3(9.1)	6(8.7)
			체크	1(3.0)	1(1.4)
			로고&심벌	0(0.0)	0(0.0)
전통	1(3.0)	0(0.0)	페이즐리	1(3.0)	0(0.0)
			당초	0(0.0)	0(0.0)
			복합	0(0.0)	0(0.0)
자연	2(6.1)	5(7.2)	동물	0(0.0)	0(0.0)
			식물	2(6.1)	5(7.2)
민무늬	23(69.7)	43(62.3)	민무늬	23(69.7)	43(62.3)
기타	1(3.0)	14(20.3)	기타	1(3.0)	14(20.3)
합계	33(100)	69(100)	합계	33(100)	69(100)

결과적으로 가장 전형적인 로맨틱 스타일은, 서울 지역은 <그림 9>와 같은 블라우스와 미니스커트, 펌프스나 샌들, 숄더백의 조합이었고, 대전지역은

<그림 10>과 같은 원피스(혹은 블라우스와 5부, 7/9부팬츠), 토트백 혹은 숄더백, 샌들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다.

<표 12> 로맨틱 스타일 색상별 비교

분류	상의		하의		원피스	
	서울	대련	서울	대련	서울	대련
Red	2(13.3)	8(26.7)	0(0.0)	2(6.1)	2(10.0)	5(11.6)
Orange	0(0.0)	0(0.0)	0(0.0)	0(0.0)	0(0.0)	2(4.7)
Yellow	0(0.0)	3(10.0)	0(0.0)	0(0.0)	0(0.0)	3(7.0)
Brown	0(0.0)	0(0.0)	0(0.0)	2(6.1)	0(0.0)	0(0.0)
Green	0(0.0)	1(3.3)	0(0.0)	0(0.0)	1(5.0)	0(0.0)
Khaki	0(0.0)	0(0.0)	4(25.0)	0(0.0)	2(10.0)	0(0.0)
Blue	1(6.7)	1(3.3)	5(31.3)	1(3.0)	3(15.0)	4(9.3)
Violet	0(0.0)	1(3.3)	0(0.0)	1(3.0)	0(0.0)	0(0.0)
Purple	1(6.7)	0(0.0)	0(0.0)	0(0.0)	1(5.0)	0(0.0)
Multi	2(13.3)	4(13.3)	2(12.5)	4(12.1)	7(35.0)	11(25.6)
White	9(60.0)	7(23.3)	2(12.5)	11(33.3)	0(0.0)	16(37.2)
Gray	0(0.0)	2(6.7)	0(0.0)	3(9.1)	3(15.0)	1(2.3)
Black	0(0.0)	3(10.0)	3(18.8)	9(27.3)	1(5.0)	1(2.3)
합계	15(100)	30(100)	16(100)	33(100)	20(100)	43(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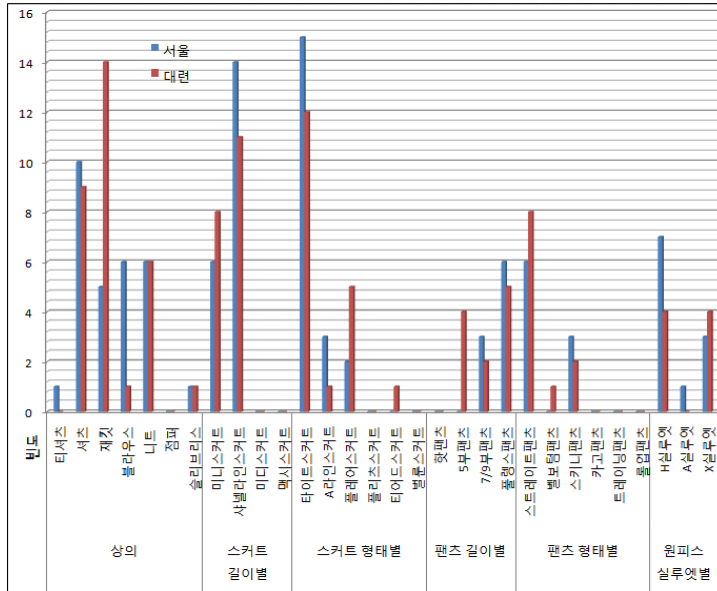
5. 클래식 스타일 비교 · 분석

클래식 스타일은 서울 8.5%, 대련 8.1%로 비슷한 빈도로 나타나고 있었고, 상의 아이템과 원피스 실루엣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두 도시 모두 유사한 스타일을 선호하고 있었다. 클래식 스타일의 아이템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의는 서울의 경우 셔츠(34.5%)가 높은 비율을 보였고 대련은 재킷(45.2%)이 높은 반면, 하의의 경우 스커트와 팬츠의 빈도는 두 도시 모두 유사하게 나타났다. 스커트는 사벨라인스커트(서울:70.0%, 대련:57.9%)와 타이트스커트(서울:75.0%, 대련:63.2%)가 공통적으로 선호되었다. 팬츠는 길이에 있어서 서울이 플렌스팬츠(66.7%)가 높은 비율로 착용된 반면, 대련은 5부(36.4%), 7/9부 팬츠(18.2%), 플렌스팬츠(45.5%)가 고루 착용되었고, 형태에 있어서는 두 지역 모두 스트레이트 팬츠(서울:66.7%, 대련:72.7%)가 많이 착용되었다. 원피스는 서울에서 10.7%, 대련에서 7.4%의 착용 비율을 보여 그다지 착용 빈도가 높지는 않았다. 선호되는 실루엣은 서울에서는 H실루엣이, 대련에서는 H실루엣과 X실루엣으로 나타났다<그림 11참조>.

문양에 있어서는 두 도시 모두 민무늬(서울: 85.0%, 대련 78.9%)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기하학적 문양, 자연문양으로 나타났으며 두 도시 간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표 13참조>. 이는 외출복 정장에서 민무늬의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온 김효숙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³¹⁾. 의복 색은 서울이 상의에 White 44.8 %, 하의에 Black 55.2%의 비율로 나타났고, 대련도 상의에 White 38.7%, 하의에 Black 36.7%의 비율로 나타나서 정장류에는 White와 Black이 가장 선호되는 색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원피스는 서울 Multi 36.4%, 대련 White와 Black이 37.5%로 나타났다<표 14참조>. 클래식 스타일에 주로 코디되는 가방은 서울(56.7%)과 대련(56.0%) 모두 숄더백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토트백이 선호되었다. 신발도 서울과 대련에서 펌프스(서울:47.5%, 대련:50.0%)가 가장 높았고 샌들(서울:35.0%, 대련 39.5%)이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는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가장 전형적인 클래식 스타일은, 서울은 <그림 12>과 같은 셔츠와 사벨라인스커트, 펌프스나 샌들, 숄더백의 조합이었고, 대련은 <그림 13>

와 같은 재킷과 폴링스 스트레이트팬츠 혹은 사빌라 인스커트, 펌프스, 숄더백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1> 클래식 스타일 아이템별 빈도



<그림 12> 클래식스타일, 서울



<그림 13> 클래식스타일, 대련

<표 13> 클래식 스타일 문양별 비교

항목	서울	대련	세부항목	서울	대련
기하학	3(7.5)	3(7.9)	스트라이프	2(5.0)	1(2.6)
			도트	0(0.0)	0(0.0)
			체크	1(2.5)	2(5.3)
			로고&심벌	0(0.0)	0(0.0)
전통	0(0.0)	0(0.0)	페이즐리	0(0.0)	0(0.0)
			당초	0(0.0)	0(0.0)
			복합	0(0.0)	0(0.0)
자연	2(5.0)	3(7.9)	동물	0(0.0)	0(0.0)
			식물	2(5.0)	3(7.9)
민무늬	34(85.0)	30(78.9)	민무늬	34(85.0)	30(78.9)
기타	1(2.5)	2(5.3)	기타	1(2.5)	2(5.3)
합계	40(100)	38(100)	합계	40(100)	38(100)

<표 14> 클래식 스타일 색상별 비교

분류	상의		하의		원피스	
	서울	대련	서울	대련	서울	대련
Red	0(0.0)	1(3.2)	1(3.4)	1(3.3)	1(9.1)	0(0.0)
Orange	0(0.0)	0(0.0)	0(0.0)	0(0.0)	0(0.0)	0(0.0)
Yellow	2(6.9)	2(6.5)	1(3.4)	0(0.0)	0(0.0)	0(0.0)
Brown	1(3.4)	1(3.2)	2(6.9)	1(3.3)	1(9.1)	0(0.0)
Green	0(0.0)	1(3.2)	0(0.0)	1(3.3)	0(0.0)	0(0.0)
Khaki	1(3.4)	0(0.0)	0(0.0)	0(0.0)	0(0.0)	0(0.0)
Blue	1(3.4)	1(3.2)	0(0.0)	1(3.3)	1(9.1)	0(0.0)
Violet	0(0.0)	0(0.0)	0(0.0)	0(0.0)	0(0.0)	0(0.0)
Purple	1(3.4)	1(3.2)	0(0.0)	0(0.0)	0(0.0)	1(12.5)
Multi	3(10.3)	6(19.4)	1(3.4)	8(26.7)	4(36.4)	1(12.5)
White	13(44.8)	12(38.7)	5(17.2)	6(20.0)	0(0.0)	3(37.5)
Gray	1(3.4)	0(0.0)	3(10.3)	1(3.3)	1(9.1)	0(0.0)
Black	6(20.7)	6(19.4)	16(55.2)	11(36.7)	3(27.3)	3(37.5)
합계	29(100)	31(100)	29(100)	30(100)	11(100)	8(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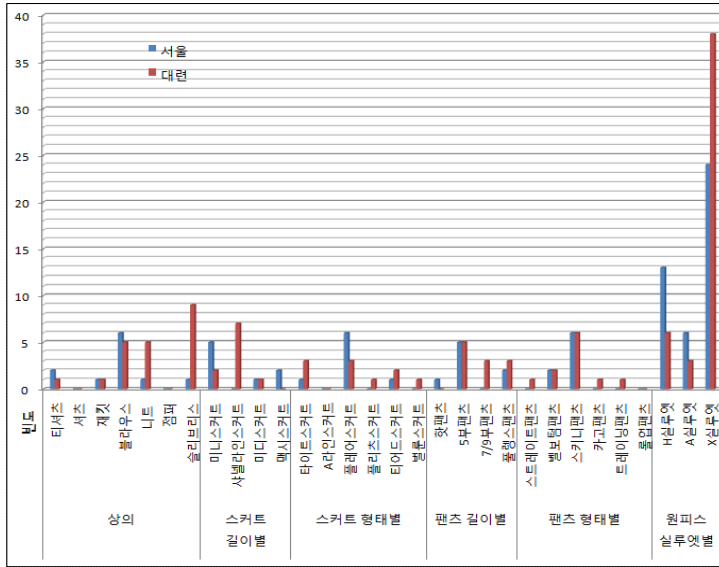
6. 페미닌 스타일 비교 · 분석

페미닌 스타일은 서울(10.9%) 보다 대련(13.8%)에서 높게 나타났는데, 페미닌 스타일의 아이템에서는 원피스가 서울 41.7%, 대련 42.6%로 높게 나타났다. 상의는 서울은 블라우스(54.5%)가 선호된 반면 대련은 슬리브리스(42.9%)가 주로 착용되었고, 하의는 서울의 경우 미니스커트(62.5%)가 선호된 반면 대련은 사벨라인스커트(70.0%)가 선호되었다. 팬츠의 길이에 있어서는 서울과 대련 모두 5부팬츠(서울:62.5%, 대련:45.5%)가 선호되었고 형태에 있어서는 스키니/레깅스(서울:75.0%, 대련:54.5%)가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 역시 로맨틱 스타일처럼 원피스와 팬츠를 레이어드 룩으로 착용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원피스의 실루엣은 서울과 대련 모두 X실루엣을 선호하였지만, 서울 55.8%, 대련 80.4%로 대련이 보다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었다<그림 14참조>. 이는 타 지역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결과와 일치되는 결과³²⁾³³⁾로, 신체선 혹은 신체를 과감하게 노출하는 중국 여성 특유의 성향으로 파악된다.

문양에 있어서는 두 도시 모두 민무늬(서울: 41.2%, 대련 38.5%)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자연문양, 기하학적 문양 순으로 나타났으며 두 도시 간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표 15참조>. 의복 색은 서울이 상의에 Multi 27.3%, White 18.2%순이었고, 하의에 Black 62.5%의 비율로 나타났다. 대련은 상의에 White 52.4%, 하의에 Black 33.3%의 비율로 나타났다. 원피스는 Multi가 서울 48.8%, 대련 53.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16참조>. 이는 화려한 꽃문양 혹은 기하학적 문양의 원피스가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페미닌 스타일에 주로 코디되는 가방은 서울은 숄더백이 71.4%로 높게 나타났으나 대련에서는 토트백 41.2%, 숄더백 47.1%로 선호도에 차이가 나타났고, 신발은 서울과 대련에서 샌들(서울:35.3%, 대련:56.3%)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가장 전형적인 페미닌 스타일은, 서울의 경우 <그림 15>과 같은 미니원피스에 숄더백, 샌들의 조합인 반면, 대련은 <그림 16>과 같은 과감한 디자인의 사벨라인의 원피스, 숄더백 혹은 토트백, 샌들의 조합이었다. 특히 대련의 경우 대담하게 신체를 노출하여 서울 보다 섹시한 스타일로 착용되고 있었다.



<그림 14> 페미닌 스타일 아이템별 빈도



<그림 15> 페미닌스타일, 서울
<그림 16> 페미닌스타일, 대련

<표 15> 페미닌 스타일 문양별 비교

항목	서울	대련	세부항목	서울	대련
기하학	8(15.7)	13(20.0)	스트라이프	2(3.9)	2(3.1)
			도트	4(7.8)	10(15.4)
			체크	1(2.0)	1(1.5)
			로고&심벌	1(2.0)	0(0.0)
전통	2(3.9)	2(3.1)	페이즐리	1(2.0)	1(1.5)
			당초	1(2.0)	1(1.5)
			복합	0(0.0)	0(0.0)
자연	14(27.5)	18(27.7)	동물	0(0.0)	1(1.5)
			식물	14(27.5)	17(26.2)
민무늬	21(41.2)	25(38.5)	민무늬	21(41.2)	25(38.5)
기타	6(11.8)	7(10.8)	기타	6(11.8)	7(10.8)
합계	51(100)	65(100)	합계	51(100)	65(100)

<표 16> 페미닌 스타일 색상별 비교

분류	상의		하의		원피스	
	서울	대련	서울	대련	서울	대련
Red	1(9.1)	1(4.8)	0(0.0)	1(4.8)	1(2.3)	4(8.5)
Orange	1(9.1)	0(0.0)	0(0.0)	0(0.0)	1(2.3)	0(0.0)
Yellow	0(0.0)	0(0.0)	0(0.0)	0(0.0)	1(2.3)	0(0.0)
Brown	0(0.0)	0(0.0)	0(0.0)	1(4.8)	0(0.0)	0(0.0)
Green	1(9.1)	0(0.0)	1(6.3)	0(0.0)	2(4.7)	0(0.0)
Khaki	0(0.0)	0(0.0)	0(0.0)	0(0.0)	2(4.7)	0(0.0)
Blue	1(9.1)	2(9.5)	0(0.0)	2(9.5)	3(7.0)	2(4.3)
Violet	1(9.1)	0(0.0)	0(0.0)	0(0.0)	0(0.0)	1(2.1)
Purple	0(0.0)	1(4.8)	0(0.0)	2(9.5)	1(2.3)	1(2.1)
Multi	3(27.3)	2(9.5)	1(6.3)	3(14.3)	21(48.8)	25(53.2)
White	2(18.2)	11(52.4)	1(6.3)	4(19.0)	5(11.6)	4(8.5)
Gray	0(0.0)	0(0.0)	3(18.8)	1(4.8)	3(7.0)	1(2.1)
Black	1(9.1)	4(19.0)	10(62.5)	7(33.3)	3(7.0)	9(19.1)
합계	11(100)	21(100)	16(100)	21(100)	43(100)	47(100)

V. 결론

중국과 한국의 패션시장 및 소비자는 '중국發', '중국風' 혹은 '한류'라는 흐름 하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었다. 장기간의 고성장으로 중국 도시소비자들은 현재의 소비를 즐기며, 높은 자부심과 긍지를 바탕으로 자국 역사와 문화에 대해 재조명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반면, 한국 소비자들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붕괴로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어 있어 문화, 패션에 대한 소비도 줄어들고 있다. 현재 여성복 산업에서 한국이 중국과의 경쟁격차가 높은 부문은 디자인 부분으로, 급변하는 중국시장에서 한국 패션기업이 시장 확대 및 수익창출의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중국소비자의 변화 및 선호, 한국 소비자와의 차이를 끊임없이 살펴야 하는 시점이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의 패션 도시로 급부상하고 있는 동북지역의 대련(Dalian, 大連)과 한국의 패션 중심지인 서울 지역의 스트리트 스타일 중 패션에 민감한 20-30대 여성의 패션 선호도를 6개의 스타일-진캐주얼, 이지캐주얼, 스포츠캐주얼, 로맨틱, 클

래식, 페미닌-로 나누어 아이템, 문양, 색, 액세서리를 비교·분석하여, 양 도시간 패션 스타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혔다.

중국 동북지역의 대표적인 패션 도시인 대련과 서울의 스트리트 패션을 스타일 별로 비교한 결과, 두 도시 모두에서 빠른 유행의 변화를 읽을 수 있었고, 서울의 유행 스타일 뒤를 대련이 바짝 뒤쫓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세계적인 패션의 흐름에 맞추어 두 도시 모두 캐주얼 스타일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서울과 대련 모두 캐주얼 스타일이 70%대로 나타났다.

먼저 진캐주얼 스타일은 두 도시 모두에서 티셔츠와 미니 타이트스커트, 숄더백, 샌들 혹은 스니커즈가 선호되고 있었지만, 서울의 진캐주얼은 단정하고 보수적인 성향을 보인 반면, 대련의 진캐주얼은 과감한 노출 성향을 보였다. 의복 색, 문양, 액세서리에 있어서는 약간의 빈도 차이는 있지만 가장 선호되는 스타일에 있어서는 숄더백과 샌들, 스니커즈 등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지캐주얼 스타일은 서울에서는 티셔츠와 미니 타이트스커트, 샌들과 숄더백의 조합인 반면, 대련

지역은 티셔츠와 미디 플레어스커트, 스니커즈, 토트백 혹은 크로스백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대련의 미디 플레어스커트와 스니커즈의 조합은 서울에서 2007년도 여름에 유행했던 스타일로 대련이 서울의 유행을 바짝 뒤쫓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로맨틱 스타일은 서울보다 대련에서 빈도가 높았다. 서울은 블라우스와 미니스커트, 펌프스나 샌들, 숄더백의 조합이었고, 대련은 원피스 혹은 블라우스와 5부, 7/9부팬츠, 토트백 혹은 숄더백, 샌들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다. 같은 로맨틱 스타일이어도 대련이 스커트 길이가 좀 더 길고, 팬츠를 많이 착용하는 등 활동적이고 편안함을 중시하는 경향임을 알 수 있다.

스포츠캐주얼 스타일은 두 도시 모두 빈도가 높지 않았다. 서울은 전형적인 트레이닝복이었고, 대련은 티셔츠 및 셔츠에 핫팬츠 혹은 미니스커트, 7/9부팬츠에 스니커즈가 선호됨을 알 수 있었다. 서울 보다 대련에서 스포츠캐주얼 스타일의 빈도가 높은 것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개최가 스포츠캐주얼 스타일의 유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을 짐작케 한다.

클래식 스타일은 두 도시의 빈도와 스타일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서울은 셔츠 혹은 블라우스와 사벌라인스커트, 펌프스나 샌들, 숄더백의 조합이었고, 대련은 재킷 혹은 셔츠와 플렌스 스트레이트팬츠 혹은 사벌라인스커트, 펌프스, 숄더백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다.

페미닌 스타일은, 서울의 경우 미니원피스에 숄더백, 샌들의 조합인 반면, 대련은 신체를 노출한 과감한 디자인의 사벌라인의 원피스, 숄더백 혹은 토트백, 샌들의 조합이었다. 이 경우 대련이 서울보다 대담한 신체노출 양상이 나타나 보다 여성스럽고 섹시한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체적으로 문양에 있어서는 원피스를 제외하고는 민무늬가, 의복 색에 있어서는 계절적 요인으로 White가 공통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액세서리에 있어서도 서울지역은 숄더백이 높게 선호되었으나 대련에서는 고루 선호되는 편이었고, 스타일에 따른 신발 착용은 서울에서는 계절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한 반면 대련의 경우는 계절적 요인 보다는 유행의 영향이 더욱 크다는 것을 스니커즈의 착용빈도로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서울과 대련의 스트리트 패션 스타일의 분명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고, 앞으로 이러한 연구가 중국의 여러 지역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한국 패션산업의 중국 패션시장의 성공적 진입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 1) 홍창표(2008), *신조어로 알아보는 중국 소비시장 트렌드 변화*, 지식경제부 해외진출기업지원단, p.3.
- 2) 쑨자(沈佳), “베이징올림픽이후 중국 소비시장 전망”, *LG 경제연구소*, 2007.11, p.51.
- 3) “의류소비시장조사보고서”, (2004. 8),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자료검색일* 2008. 9 .13 . 자료출처 <http://kofoti.or.kr>
- 4) 홍창표, op. cit., p.26.
- 5) 강준완 외 23인(2007), *미래의 중국보기-중국 동부를 가다*, 인민일보한국발행처, p.48.
- 6) 조창완(2003), *중국도시기행*, 성하출판, p.158.
- 7) 강준완 외, op. cit., p.53.
- 8) 김찬주·노미경(2006), “서울과 북경 여성들의 데님패션 비교 연구”, *복식*, 56(2).
- 9) 임순·김효숙·손희정(2001), “한국과 중국의 스트리트패션 비교에 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9(10).
- 10) 최경희(2005), “중국 스트리트 패션에 나타난 캐주얼 이미지 연구”, *호남대학교학술논문집*, 26(2).
- 11) 배수정(2007), “중국 동북 3성 스트리트 패션 분석(제1보)”, *한국의류학회지*, 31(11)
- 12) 배수정(2007), “중국의 새로운 성장축 동북지역 스트리트 패션분석,(제1, 2보)”, *한국가정과학회지*, 10(3)
- 13) 천지영·배수정(2006), “2005년 여름 중국 대련 시 여성 스트리트 패션분석”, *패션비즈니스*, 10(2).
- 14) 오현아·배수정(2005), “2005년 여름 중국 선

- 양지역의 여성 스트리트 스타일분석,” *전남대학교생활과학연구*, 15.
- 15) 백정현·배수정(2008), “2006-2007F/W 중국대련시 여성스트리트 패션분석”, *패션비즈니스*, 12(2)
- 16) 배수정·백정현·최윤규·유화정(2008), “2007년 여름 중국 대련 여성 스트리트 패션 분석,” *한국의류학회지*, 32(11), p.6.
- 17) “중국 소비시장의 新조류”, (2007.11.28), *삼성경제연구소, 자료검색일 2008. 10. 28*. 자료출처 <http://www.seri.org>
- 18) 김화섭(2008), “북경올림픽 이후 중국 소비시장의 변화와 대응방향”, *산업연구원*, p.2.
- 19) “중국 소비시장의 新조류”, op. cit., p.5-19.
- 20) “2009년 국내외 경제전망-수출둔화로 성장을 3%대 하락”, (2008, 10, 28), *LG Business Insight*, p.16.
- 21) 박필재(2008), “최근 중국 무역구조의 변화와 시사점”, *국제무역연구원*, p.15-16.
- 22) “여성복산업 경쟁력 조사”, (2007.11.21), *한국 의류산업협회, 자료검색일 2008. 9. 13*. 자료출처: <http://www.kaia.or.kr>
- 23) 김용준, op. cit., p.19.
- 24) 홍창표, op. cit., p.13-14.
- 25) 한우덕(2007), *세계 경제의 슈퍼엔진 중국*, 미래에셋 투자교육연구소, p.75
- 26) 함성철(2007), “2007 SWITCHing Korea”, *제일기획브랜드마케팅리서치보고서*, p.14-16.
- 27) “여성복산업 경쟁력 조사”, op. cit., p.5.
- 28) 최경희, op. cit., p.886
- 29) 배수정, 오현아(2007), op. cit., p.47
- 30) Bae, S. J., Wee, E. H., Jung, K. H.,(2008), 2007 Summer Women's Street Fashion in Shenyang, China, *Journal of Fashion Business*, 12(3), p. 4
- 31) 김효숙(2000), “중국여성 소비자의 의복 디자인 선호도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생활문화·예술논집*, 23, p.110
- 32) 최경희, op. cit., p.886
- 33) Bae, S. J.(2007), "An Analysis of 2006 Summer Street Fashion in Harbin, China", *Journal of Fashion Business*, 11(3), p. 91

접수일(2008년 12월 22일)

수정일(1차 : 2009년 1월 30일)

게재확정일(2009년 2월 9일)